

변

전

쇼

The Mutation Show

송대극회 제31회 가을 정기공연

- ◆ 作/John Stoltenberg ◆ 企 圖/차세훈 ◆ 演出/이용섭
- ◆ 일시/84. 10. 11⇒12⇒13 PM 6 시30분
- ◆ 장소/송전대학교 제 1 공학관앞 잔디

격려사



총장 강 신 명

인간이 마음으로 정한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옮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생의 통례입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이념이나 진리를 위하여 인간이 꿈꾸는 예술의 목적은 너무나도 진지한 이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학문과 극예술을 병행하여온 우리의 숭대극회는 참된 학창 생활의 보람을 주는 모임이 아닐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31회 가을 정기공연으로 존 스톨텐버그의 "변전쇼"라는 작품을 올리게 된 것은 새생명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표현극이라는 입장에서 극예술의 다른 얼굴을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말의 밀알이 간직한 미래가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한 손길들 위와 참관하게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극회장의 변



극회장 차 세 훈

고리타분한 유산과 모자라는 시간의 동지속, 타인의식과 우리 자신들이 벌인 한판 승부에서 진정 영광스런 승리자의 체취를 호흡한다는 것은.

그러나 힘들지 않았읍니다.

더 진보된 연극에로의 뜨거운 열망과 고통을 초월한 선후배간의 노력이 이룬 본격화음이 우물한 가을의 공허를 벅차게 채워주었으므로.

이제는 초연히

시러져갈 공간으로의 접경에

저만치 고개를 내밀면서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아울러 질타를 기대해 봅니다.

작품소개

종래에 우리에게 익숙한 연극은 인간사의 모든것을 상상력이나 경험으로써 사용한 대사를 모체로한 고전극이나 사실주의 극이었다. 금번 John stoltenberg의 변전쇼(Mutation)는 미국의 open theater에서 공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이다.

특히, 공연된 장소가 교도소며 관객이 재소자란 점이다.

먼저 이 연극의 형태가 대사가 주가 아닌 연기자의 신체언어와, 음향 효과, 호흡등을 주로한 전위극이란 점이다. 연기자의 행동이 충동으로 체현되며 그 충동은 타성이 아닌 자연적이며 원초적인 의식의 상태로 보여진다. 따라서 극전체가 어떤 Story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기자의 각기 연기가 통합분열로 이루어지는 육체의 움직임, 소리의 조화, 열려진 공간위로 뛰고 구르는 것이다.

이 극은 10단계로 벌어지며 각장의 변전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인간의 태초의 상태는 '無'이며 자연이다. 에덴동산의 원죄를 갚은 이후 인간의 심은 태어나기 이전은 순결한 자연의 상태이나 生의 모든것에게 부여된 환경과 공격으로 본질의 순결과 악을 갖은 반·반상태가 된다. 허나 모든 변전의 상태가 자연으로 환원하는날 우리는 순결과 거대한 우주의 심을 기질 것이다.

연출의 변



연출 이 용 섭

태초이전 우리는 모두가 自然이라.
 검은 땅 덩어리가 황토빛으로 변할때
 우리는 그녀에게 이름을 주었고,
 언어와 애무를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인간의 속성은 자연이다
 황토빛 검게될때 그것이 인지요.

C A S T



남자 I : 건축2
김상현



여자 I : 불문1
김은영



남자 III : 전기1
박봉출



여자 III : 수학1
김경숙



남자 II : 전산1
하승민



여자 II : 불문1
홍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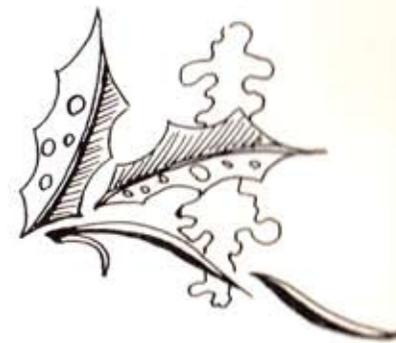
남자 IV : 정외1
이상민



여자 IV : 독문1
류재연



남자 V : 경영1
류근화



기획의 변



기획 허공 차세훈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먹어도 폐렴 한번 안 걸리던 시절에, 한 나무꾼이 살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매일매일 첩첩산중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다. 그는 이제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아니지만 그의 가족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아담한 집을 지었다.

연극을 위해 땀 흘려주신 전 극회원과 그밖에 도움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무감 장성수



의상 최윤희

S T



조명1 이영민



소품 김미경

F F



주방장 송기범



합행 인진호



분장 문경애



무대장치 김형대



조연출 김상현



공연
선배일동

연 연 보

연	년	월	작	품	명	출
1921년	6	13	연극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미국 노래의 밤"			
1923년	7	7, 21	전한국 "우리의 발전" "동력불" "삼년후" "기계인간"			
			열셋살년회 주관			
1923년	7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배궁으로 돌아오다" 황석영작 이만기획			진진호
2	1968년	10	"our Town" by Thorn Wilder			이태수
3	1969년	10	"피자들" 이오네스코 작			이태수
4	1969년	10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聖者の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희
6	1970년	10	"勝負의 終末" 카뮤엘·베케트 작			김양기
7	1971년	5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성홍화
8	1971년	5	"전날의 일기" 윌헬름 작			수일서
9	1971년	28, 31	"남해의 노래 對해서" 안문·최동진 작			한영희
10	1971년	6	"황금단자" (오이극) 쿠리우터스 작			유근배
11	1971년	6	"고도를 기다리며" 카뮤엘·베케트 작			차현재
12	1971년	11	"서적방의 그림자" 안·오제이시 작			차현재
13	1972년	5	"생일 파티" H. 윌러 작			한영희
14	1973년	5	"미시시피의 결혼" F. 윌러작 작			고봉인
15	1973년	10	"밤" H. 윌러 작			차현재
16	1973년	10	"기도" (소극장) F. 아리엘 작			차현재
17	1974년	5	"성리의 사살들" (선 5인) A. 카뮈 작			성홍화
18	1975년	3	"악마의 춤" W. Arving 작 (신입생환영)			김홍수
19	1975년	6	"바울터의 신력" 안홍순			안홍순
20	1975년	6	"도스투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목이"			안홍순
21	1975년	10	"비타만과 빙화법" Max. Frish 作			안홍순
22	1976년	10	"보석과 여인" 이상벽 작 (신입생환영)			김득남

연	년	월	작	품	명	출
15	1976년	6	"인사불" 장·알토스·만·이영리 작			김득남
16	1976년	10	"뎀" 장·알토스·만·이영리 작			김영덕
17	1977년	3	"춤 앞" 은대성 작 (신입생환영)			안홍순
18	1977년	6	"EQUUS" 피터·피어 작			김영덕
19	1977년	6	"EQUUS" 피터·피어 작			김영덕
20	1977년	10	"EQUUS" 피터·피어 작			김영덕
21	1978년	10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作			김영덕
22	1978년	6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피어 작			김영덕
23	1978년	10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피어 작			김영덕
24	1979년	3	"뎀" 이상벽 작 (신입생환영)			장재호
25	1979년	3	"뎀" 이상벽 작 (신입생환영)			장재호
26	1979년	6	"전장 2979" 김영덕 작			이병국
27	1979년	9	"조 물" 오재환 작			황정근
28	1980년	11	"아니, 이 평명은 노래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갈라크 작			박일권
29	1981년	3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신입생 환영)			오재환
30	1981년	6	"노부인의 방문" F. 윌러작 작			황정근
31	1981년	11	"날맞이 꽃" 김병중 작			황정근
32	1982년	3	"임금님께서는 날아라 귀" 김용리 작 (신입생 환영)			이용섭
33	1982년	6	"캐리커라" A. 카뮈 작			지 국
34	1982년	10	"웨도우메스" M. 크리스토퍼 작			황정근
35	1983년	4	"블루코버티" 피터피어작 (신입생 환영)			홍이석
36	1983년	6	"미시시피의 결혼" F. 윌러작 작			김영덕
37	1983년	10	"트래퍼" John Bowen 作			오경영
38	1984년	3	"캐럴의 소공인" N. Holand 作 (신입생 환영)			김연보
39	1984년	5	"도커니" (The crucible) A. Miller 作			오재환